

“휴대폰·MP3는 아예 가져오지 마세요”

■ 수능 D-2 수험생 유의 사항

8시10분까지 입실...문제 유형·흔적 구분 잘해야

“휴대폰·MP3는 시험장에 절대 가져오지 마세요. 작년엔 83명이 적발돼 0점 처리됐거든요.”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시험장에 휴대폰·스마트워치·MP3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를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반납하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10일 시험 실시요령과 반입금지 품목 등을 알리는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인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자신의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을 사전에 직접 찾아가 위치를 알아둬 시험 당일 다른 고사장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로 들어가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해 수험생 유의사항을 듣고서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스마트워치·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용 전화기, 웨어러블기기(착용형장치),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MP3플레이어·전자사전·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재생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

부득이하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왔으면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한다.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는 자녀가 전자기기를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1·2교시는 문제지가 유형(A/B형)과 문형(홀/짝수형)으로, 3교시는 문형(홀/짝수형)으로 구분되므로 문제를 풀기 전 자신이 선택한 유형(A/B형)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는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므로 수험생들은 시험방법을 주의해서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무단이탈하면 남은 시험을 치를 수 없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없어선 안될 ‘수능시계’ 반입 여부 놓고 혼선

‘시험장 감독관 재량’ 애매한 답변에 수험생 전전긍긍

라와 있다. 내 시계는 뭘까? 안될까? 만약, 시험장에서 안 된다고 하면...

생각만해도 아찔하고 끔찍하다. 수능 자체만으로도 긴장되고 부담스러운데 당일 날 시계를 빼앗겨 시간관리를 못한다면,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지만, 교육당국의 어느 누구도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해석이 모호한 ‘교

육부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되풀이하거나 ‘시험장 감독관 재량’이라는 답변뿐이다.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 하나 스톱워치·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는 휴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

러면서 확실한 것은 시험장의 감독관 판단에 따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혼돈을 낳고 있다.

실제 2년 전 대구에서 동일한 시계를 가지고 A시험장은 반입 금지가 됐고, B시험장은 허용된 사건이 발생했다. 감독관 판단이 제각각인 탓이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많은 시계가 쏟아지는데 기준마다 가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면서 “다만, 시각과 관련된 연월일이 표시되는, 어느 누가 봐도 시계 기능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은시간 표시되는 시계 가져오도 되나요? 시간 변경때 날짜가 뜨는데 괜찮나요? ‘감독관 재량’이라는데 만약 시험장에서 썩기면 어떻게 해요?”

“요즘 판매되는 수능시계는 ‘연월일’ 표시도 나옵니다. 다른 기능은 없어요. 이 전자시계 뭘까, 안될까? ‘감독관 판단’이라고 하지 마시구요...”

수능을 앞둔 고3 교실이 들쭉거리고 있다. 시험시간 관리에 필수적인 ‘시계’ 탓이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시계가 있고, 시험장 반입 금지 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사이트에는 ‘시계’와 관련된 질문이 최근 10일새 10여건이 올



수능 시험지 배송 시작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0일, 제78지구 시험본부인 담양교육청에 도착한 시험지 및 답안지를 직원들이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3 | 해질 17:30 | 다음날 21:20 | 다음날 10:42

출근길 짙은 안개 주의하세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지역	날씨	기온(°C)
광주	구름많음	5/15
목포	흐림	7/15
여수	구름많음	10/16
나주	구름많음	1/15
완도	구름많음	7/16
구례	구름많음	1/15
강진	구름많음	3/16
해남	구름많음	2/16
장성	구름많음	2/15
보성	구름많음	2/16
순천	구름많음	8/16
영광	구름많음	2/15
진도	구름많음	6/15
전주	구름많음	3/14
군산	구름많음	3/14
남원	구름많음	0/15
축산도	흐림	11/15

시도	오전		오후			
	종량	파고(m)	종량	파고(m)		
서해	남부	북서~북	0.5	서~북서	0.5	
남해	서부	남부	북서~북	0.5~1.0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남부	북서~북	0.5	북서~북	0.5
남해	서부	남부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목포	미물		썰물	
	09:44	22:24	04:32	17:16
여수	11:44	23:39	05:09	17:44

기간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날씨	☁	☀	☀	☀	☀	☀	☀
기온	6/14	3/9	4/13	5/15	6/13	7/12	5/15

‘브로커’ 前 전남도 투자유치 자문관 중형 선고

수도권에서 전남도내 산업단지로 기업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한 전 전남도 투자유치 자문관과 공무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마옥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전 투자유치 자문관 최모(44)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나주시 공무원 김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에 벌금 1억 8000만원과 추징금 6000만원을, 다른 나주시 공무원 위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컨설턴트’라는 명칭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1명(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8900만원)과 사문서 위조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 1명(벌금 100만원)을 뺀 나머지 업체 관계자 등 1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기업 운영자와 직원들의 경우 받은 보조금 중 반환한 액수,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12 수백통 장난 전화

40대 남성 끝내 철장행

해남경찰은 10일 수 개월간 112와 119 등에 상습적으로 협박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은 혐의(공무 집행방해 등)로 문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6시 해남군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뇌물을 먹은 경찰관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5시간 동안 175통

의 협박 전화를 하는 등 최근까지 112·119에 302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걸어 공무원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경찰에서 “어릴 적 경찰과의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자 순간 과거 기억이 떠올라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지난해 114 여성 안내원에게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당뇨환자를 위한 매출 3% 기부금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전남대학교병원

H 현대해상화재보험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 28,000원
- 시럽 일반 22,000원
- 가루 38,000원
- 고체 36,000원

(무료배송)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널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U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